

## 머 리 말

최근 몇 년동안의 國內外經濟與件은 急變하고 있다. 經濟規模의 급격한 확대와 各 經濟單位間의 복잡한 聯關性은 經濟의 效率性問題를 필연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市場經濟原理를 축으로 하는 經濟民主化·自律化에로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政治·社會등 經濟外的 部門으로부터의 民主化열기는 經濟에 있어서의 福祉, 正義問題로까지 과급되어 급기야 經濟全般에 걸쳐 勞使紛糾등 심각한 열병을 앓게 하고 있다. 또한 交易規模의 확대와 大幅의 貿易收支黑字는 交易相對國과의 通商摩擦을 빚게 하는 등 새로운 國際交易環境에의 신속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要因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與件變化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오겠지만 특히 生産과 輸出을 담당하고 있는 企業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이야말로 심각하다 하겠다. 그동안 經濟成長過程에서의 企業의 견인차적 역할을 생각해 볼 때 企業이 急變하는 狀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 經濟全體의 成敗와 직결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우리 企業 특히 大企業들의 지속적 成長을 위해 지난 成長過程에서 大企業의 成長을 결정한 要因 특히 環境的 要因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새롭게 변모한 環境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成長過程에서 大企業의 발전을 결정지은 要因으로 本 研究에서는 크게 4가지, 즉 각종 支援政策을 중심으로 한 政府의 經濟政策,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을 미덕으로 한 풍부한 人力資源의 존재, 成長初期의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海外市場의 需要與件 그리고 技術과 資本의 해외로부터의 導入의 容易性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要因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企業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企業自

體內的 체질강화, 自體技術開發 및 人力育成을 통한 生産性 向上, 海外投資의 活性化, 所有와 經營의 분리, 財務構造의 安定化 그리고 外向指向的·量的·非關聯多角的 成長으로부터 質的·專門性を 강조하는 關聯多角的 成長戰略의 채택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本 研究는 企業의 成長戰略을 微視的 觀點이 아닌 巨視的 觀點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되며 學界, 官界, 業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1年동안 本 研究院 招聘研究委員으로 계시면서 本 研究를 맡아주신 郭承滌教授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本 研究를 도운 研究陣의 勞苦에도 感謝를 드린다.

1989 年 1 月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崔 鍾 賢

# 目 次

머 리 말

第 1 章 序 論	1
第 2 章 大企業集團의 形成과 成長過程	3
第 3 章 環境變化와 大企業의 對應	30
第 4 章 結 言	40
參 考 文 獻	41
附 表	45
附 圖	51

## 表 目 次

〈表 1〉	大企業의 事業體 및 從業員數 變化推移	3
〈表 2〉	大企業의 附加價值	4
〈表 3〉	大企業의 雇傭推移	5
〈表 4〉	6 大企業集團의 賣出額 成長推移	7
〈表 5〉	6 大企業集團의 賣出額 및 比重	7
〈表 6〉	6 大企業集團의 成長과 多角化	10
〈表 7〉	6 大企業集團의 系列社數	12
〈表 8〉	大企業의 輸出比重	13
〈表 9〉	大企業의 賃金變化推移	15
〈表 10〉	韓國工業構造 變動推移(附加價值基準)	16
〈表 11〉	輸出構造의 變化推移	17
〈表 12〉	學歷別 入職者數	19
〈表 13〉	國別 技術導入現況	20
〈表 14〉	6 大企業集團의 技術導入現況	21
〈表 15〉	科學技術投資 現況	36
〈表 16〉	企業體의 研究開發費	36

## 圖 目 次

〈圖 1〉	6 大企業集團의 成長과 多角化	9
-------	------------------	---

## 附 表 目 次

〈附表 1〉	6 大企業集團의 業種別・年度別 技術導入現況 .....	47
〈附表 2〉	韓國의 業種別・年度別 技術導入現況：1962 ~ 1986 .....	48
〈附表 3〉	韓國의 業種別 技術導入 代價支給現況：1962 ~ 1986 .....	49

## 附 圖 目 次

〈附圖 1〉	6 大企業集團의 多角化過程 .....	53
〈附圖 2〉	現代그룹의 多角化過程 .....	54
〈附圖 3〉	三星그룹의 多角化過程 .....	55
〈附圖 4〉	럭키金星그룹의 多角化過程 .....	56
〈附圖 5〉	大宇그룹의 多角化過程 .....	57
〈附圖 6〉	鮮京그룹의 多角化過程 .....	58

## 第 1 章 序 論

우리나라 經濟는 1960년대초 제 1 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年平均 8%이상의 높은 成長率로 量的 확대를 거듭하여 왔고, 그 構造도 농업위주의 經濟構造로부터 製造業 중심의 經濟로 변화하였다.<sup>1)</sup> 우리 經濟의 量的 팽창과 質的 변화를 가져온 主體가 企業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企業도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발전추세와 더불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명목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大企業 중 金融機關을 제외한 製造業體의 소수가 1984년 이래 포춘誌선정의 世界 100 大企業의 서열에 오르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 經濟가 量的 확대와 構造的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근년에 國際收支가 대폭적인 赤字로 전환되면서 對內外與件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企業環境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對內外的 환경변화는 앞으로의 企業經營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經濟運用方式이 民間自律經濟體制로 이행되면서 과거와 같은 정책적 보호는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企業經營에 가일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輸出市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國際收支赤字에 따른 對外環境變化는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될 실정이다.

本稿에서는 우리 企業의 發展過程을 大企業集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내와 국제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성장을 지속할 것

---

註 1) 韓國經濟의 發展에 관하여 박승영·이영선 (3)과 조순 (17) 참조.

인가 하는데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論議는 企業의 성장이 經濟成長 내지 經濟發展과 직결된다는 데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우기 최근의 經濟民主化 趨勢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企業의 주체적인 經營方向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意味를 부여할 수 있다 하겠다. 企業環境變化에의 대응방안을 우리나라 企業의 전형이 되는 大企業集團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자료획득의 용이성 등 분석의 편리함 이외에도 보편적 논리의 전개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하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이 序論에 이어서 제 2 장에서는 大企業集團<sup>2)</sup>의 位相과 그 位相을 결정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과거의 大企業集團의 發展樣相에 따라서 大企業集團이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에서는 大企業集團의 발전과 관계된 本稿의 핵심을 結言할 것이다.

---

註 2) 企業集團은 財閥, business group, Conglomerate의 의미로 사용됨.

## 第 2 章 大企業集團의 形成과 成長過程

企業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經濟單位이다. 鑛工業部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企業의 總數는 1963년 약 2萬개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에는 이보다 2.5배이상 증가한 약 52,000개로 추정된다. 이 중 大企業은 약 1,220개 정도로 전체기업수의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鑛工業部門 企業이 고용하고 있는 從業員數는 1963년 46萬名이었으나 1986년에는 283萬名으로 6배 증가하였다(〈表 1〉참조).

〈表 1〉 大企業의 事業體 및 從業員數 變化推移

年 度	事 業 體 數 (10개)			從 業 員 數 (千名)		
	大 企 業	鑛工業全體	構成比(%)	大 企 業	鑛工業全體	構成比(%)
1963	30	1,955	1.5	174	462	37.6
1970	78	2,582	3.0	486	938	51.8
1975	93	2,423	3.8	823	1,503	54.8
1980	109	3,256	3.4	1,063	2,099	50.6
1983	108	4,109	2.6	1,047	2,300	45.5
1986	122	5,201	2.4	1,208	2,833	42.6

註 : 1963, 1970년은 大企業을 종업원수 200人 이상,  
1975년 이후는 大企業을 종업원수 300人 이상으로 함.

資料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우리나라의 企業形態別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中小企業은 鑛工業 總附加 價値에서 1963년에는 50%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1986년에는 39%로 감



<表2>

大企業의 附加價值

(單位：10 億원, %)

年 度	大 企 業 (A)	鑛工業全體(B)	比 重(A/B)
1963	35.1	69.9	50.3
1970	423.6	588.3	72.0
1971	530.5	733.1	72.4
1972	682.0	942.4	72.4
1973	1,047.2	1,436.2	72.9
1974	1,459.0	1,952.0	74.7
1975	2,022.4	2,945.8	68.7
1976	2,951.7	4,208.6	70.1
1977	3,922.6	5,785.1	67.8
1978	5,493.9	8,441.6	65.1
1979	6,153.3	9,498.2	64.8
1980	7,940.8	12,232.9	64.9
1981	10,403.7	15,941.5	65.3
1982	11,433.8	17,905.8	63.9
1983	13,517.7	21,513.1	62.8
1984	16,129.2	25,361.4	63.6
1985	17,123.3	27,495.5	62.3
1986	20,560.4	33,745.7	60.9

註：大企業은 1970 ~ 1974 年間에는 從業員 200 人 이상,  
1975 年 이후는 從業員 300 人 이상으로 하였음.

資料：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表 3〉

## 大企業의 雇傭推移

(單位：千名，%)

年 度	大 企 業(A)	鑛工業全體(B)	比 重(A/B)
1970	486	938	51.9
1971	505	923	54.7
1972	579	1,045	55.3
1973	745	1,228	60.7
1974	860	1,370	62.8
1975	823	1,503	54.8
1976	1,010	1,799	56.1
1977	1,086	2,000	54.3
1978	1,164	2,195	53.0
1979	1,148	2,196	52.3
1980	1,063	2,099	50.6
1981	1,051	2,134	49.2
1982	1,018	2,187	46.6
1983	1,047	2,300	45.5
1984	1,102	2,431	45.3
1985	1,115	2,529	44.1
1986	1,208	2,833	42.6

註：大企業은 1970 ~ 1974 年間에는 從業員 200 人 이상,  
1975 年 이후는 從業員 300 人 이상으로 하였음.

資料：經濟企劃院,『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소하였으며 1963년부터 1986년까지 평균 25.8%로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서 大企業은 1963년에 鑛工業全體의 附加價値의 50%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지만 그 成長率은 中小企業의 成長率보다 높은 年平均 27.7%로 성장하여 1986년에는 附加價値額의 61%를 차지하였다(〈表 2〉참조).

1960년대초와 1980년대초를 비교할 때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비중이 완전히 반전되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小規模企業 → 中小企業 → 大企業의 발전과정을 순탄히 밟아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鑛工業部門의 雇傭側面에서는 中小企業이 1963년에 28萬 84名을 고용하여 전체노동자의 62.4%를 고용하고 있었으나 1986년에 이르러서는 中小企業의 고용비중은 57%로 하락하였다. 반면 大企業雇傭은 1963년 37.6%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에는 總雇傭의 43%에 달했다(〈表 3〉참조).

이와 같이 雇傭面이나 附加價値面에서 大企業이 韓國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의 製造業에 있어서 大企業賣出額의 年平均 成長率은 製造業部門 生産額成長率 25.0%를 훨씬 초과하는 42.8%였다. 1987년 30大그룹의 종합매출액에서 상호거래분을 제외한 연결賣出額은 60兆 5,000億원이며 종합매출액은 77兆 6,299億원이며 이는 명목GNP의 약 62%와 79.6%에 해당한다.<sup>3)</sup> 이 중 現代, 三星, 럭키금성, 大字, 鮮京 그리고 雙龍을 포괄한 6大그룹의 年間賣出額은 39兆 9,900億원으로 명목GNP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종합매출액은 54兆 2,400億원으로 GNP의 약 55.6%에 달하고 있다(〈表 4〉참조).

大企業賣出額에서 6大企業集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28.6%에서 1986년에 83.5%로 상승되었다(〈表 5〉참조). 6大企業이 우리나라

---

註 3) 中央經濟新聞, 1988.12.21. 에 韓國信用評價(株)에서 발표된 기사로부터 인용된 것임.

<表 4>

6大企業集團의 賣出額 成長推移

(單位：10 億원)

	1973	1980	1987
GNP (명 목) (년평균 성장율)	5,396.8	37,914.9 (27.9)	97,531.7 (13.5)
6大그룹 매출액 (년평균 성장율)	417	14,743 (50.9)	54,240 (18.6)
6大그룹 매출액의 對 GNP 비율	7.7	38.9	55.6

資料：이종윤, 『企業集團의 形成메카니즘과 評價』, p.87.

韓國信用評價(株), 中央經濟新聞(1988.12.21)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6大企業集團의 行態와 發展樣相은 企業全體 특히 大企業의 發展樣相을 대

<表 5>

6大企業集團의 賣出額 및 比重

(單位：10 億원, %)

年 度	大企業賣出額 (A)	6大企業集團賣出額 (B)	比 重 (B/A)
1970	674.7	193.2	28.6
1975	4,613.6	1,888.5	40.9
1980	25,800.4	14,871.5	57.6
1983	46,177.3	38,788.4	67.7
1986	62,822.3	52,469.5	83.5

資料：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 企業集團의 內部資料

변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6大 大企業集團인 現代, 三星, 럭키 금성, 大字, 鮮京 그리고 雙龍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大企業의 발전을 서술하고자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6大 大企業集團의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大企業全體의 자료를 이용하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大企業形成의 歷史는 1939년에 설립한 대림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1945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들 大企業이 企業集團으로 변모한 것은 몇개의 企業集團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1955년전후의 일이다(大字는 1967년에 설립). 이들 大企業集團은 1962년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공업화전략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발전 초기의 主導業種은 주로 消費財輸入代替產業이었다. <表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65년에 있어서의 主製品은 주로 섬유, 제당분야등 消費財 輸入代替品에 집중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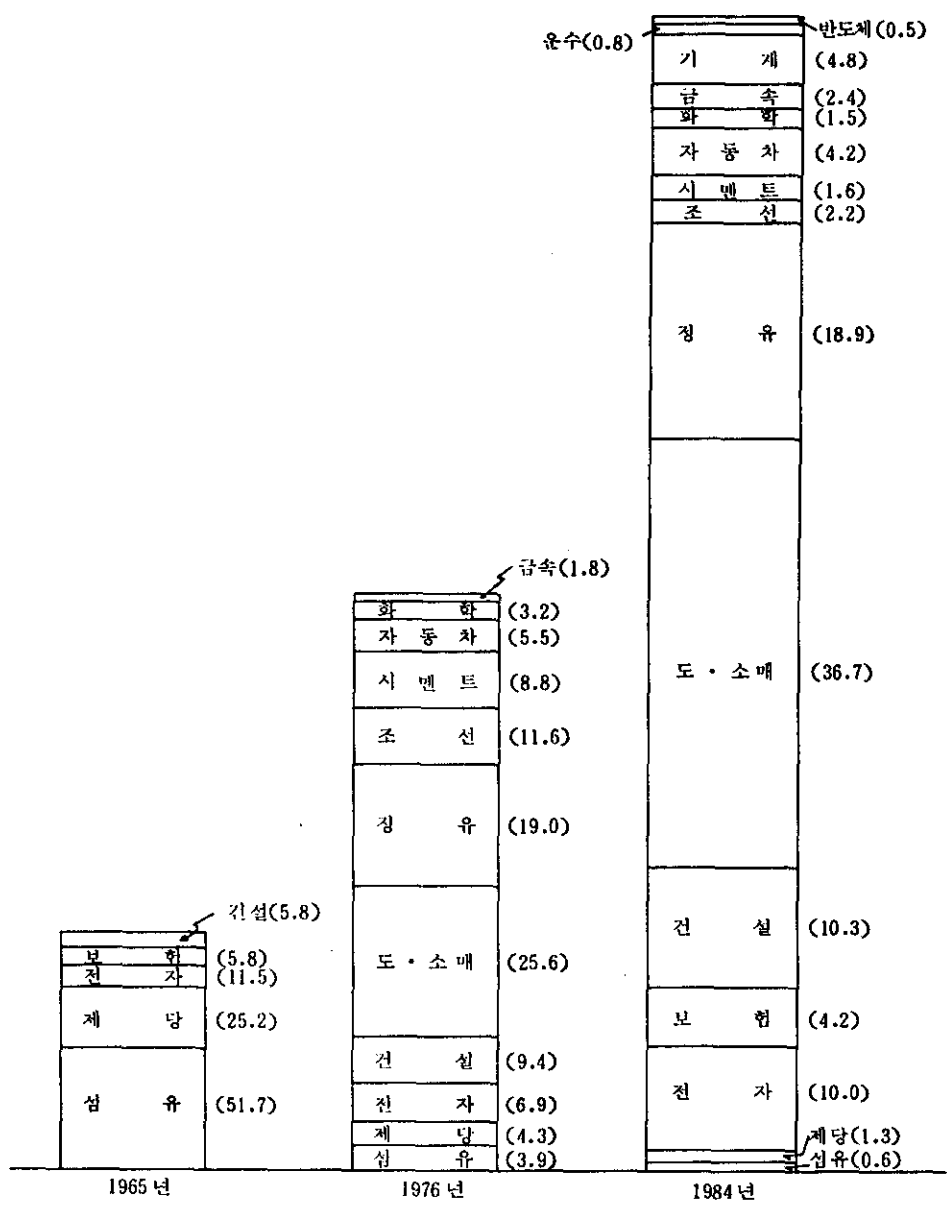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전체국민경제뿐만 아니고 大企業自體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大企業이 생산하는 품종도 상당히 多種化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精油, 造船, 建設部門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自動車分野로의 진출 역시 눈에 띄는 현상이다. 따라서 1970년대 초기에는 섬유, 제당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반면 造船, 시멘트, 精油, 電子部門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가서는 종전의 輕工業爲主의 업종으로부터 重化學工業爲主의 업종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造船, 機械, 自動車部門 등의 발전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尖端產業分野 특히 電子·半導體, 自動車, 航空產業 등의 분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圖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電子와 석유화학, 자동차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 와서는 大企業이 모든 產業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

註 4) 6大企業集團의 多種化傾向은 부록 참조.

<圖 1>

6大企業集團의 成長과 多角化



資料：『韓國企業의 成長戰略과 經營構造』，大韓商工會議所.

註：賣出額基準 上位 100大企業中 6大企業集團의 會社를 포함.

< 表 6 >

6 大企業集團의 成長과 多角化

( 單位 : 億圓, % )

	1965		1976		1984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織 維	33.5	51.7	625	3.9	187	0.6
製 糖	16.3	25.2	679	4.3	406	1.3
電 子	7.4	11.5	1,100	6.9	3,182	10.0
保 險	3.8	5.8			1,332	4.2
建 設	3.7	5.8	1,495	9.4	3,303	10.3
都 · 小 賣			4,084	25.6	11,721	36.7
精 油			3,037	19.0	6,028	18.9
造 船			1,841	11.6	699	2.2
시 멘 트			1,392	8.8	511	1.6
자 동 차			879	5.5	1,344	4.2
化 學			515	3.2	502	1.5
金 屬			288	1.8	753	2.4
機 械					1,553	4.8
運 輸					244	0.8
半 導 體					179	0.5
合 計	64.7	100.0	15,935	100.0	31,944	100.0

資料 : 大韓商工會議所, 『韓國企業의 成長戰略과 經營構造』

大企業集團全體로 볼 때 多種化成長의 특징중의 하나는 多角化가 關聯 品種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非關聯品種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이다.<sup>5)</sup> 원래 기업의 多角化는 넓은 의미에서 直接·間接的인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분야로 진출하면서 經營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技術的 측면에서는 원재료가공과정상의 多角化, 폐물·부산물의 이용을 위한 多角化, 원료나 에너지의 종합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多角化등이 있을 수 있고 經營技法측면에서 판매를 위한 多角化나 資金의 調達 및 運用을 위한 資本的 多角化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大企業이 거대한 企業集團으로 발전해 오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던 것이다. 大企業 多種化는 1970년대에는 消費財代替品種으로부터 資源集約的인 重工業분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知識集約的인 品種이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6 大企業集團의 多種化와 더불어 계열사수도 1970년부터 1979년까지 3.2배로 증가하였다. 1980년부터 1981년동안 감소하였으나 198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1980년과 1981년에 계열사수가 감소한 것은 2차석유과동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과 제 5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80년의 9.27 기업정리 조치의 결과이다. 6 大 企業集團의 계열사수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平均增加率이 12.4%인데 반해 1981년부터 1986년까지의 平均增加率이 1.7%이다. 이는 1980년대에 이르러 계열사수는 상승하나 계열사수는 점차 낮은 率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表 7〉 참조). 1980년대에 계열사수 증가율이 낮게된 원인은 여러가지로 지적될 수 있으나 70년대 후반의 重化學部門에 대한 過剩投資에 대한 조정의 여과가 있었던 데다가 80년대 중반까지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으며 정부에서 大企業에 대한 與信管理強化등을 통해 中小企業과 大企業間的 均衡적 발전을 도모하였던 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註 5) 大企業集團의 多角化에 관하여 정구현(15)과 조일흠·이성규(18) 참조.



< 表 7 >

6 大企業集團의 系列社數

( 1970 = 100 )

年 度	系列社數	年 度	系列社數
1971	110	1979	321
1972	116	1980	308
1973	141	1981	280
1974	161	1982	284
1975	176	1983	294
1976	200	1984	308
1977	235	1985	333
1978	318	1986	337

註 : 1970 年을 100 으로 하여 6 大企業集團의 系列社數를 指數화한 數值임.

資料 : 各 企業集團의 內部資料.

우리나라 전체大企業의 商品市場은 國內市場보다 輸出市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나 輸出市場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상태인 것같이 보인다. 大企業의 輸出額/賣出額 비율은 1971 년의 24 %에서 1975 년에 34 %였으나 1986 년에는 30.8 %가 되었다. 이것은 輸出市場이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國內市場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 表 8 > 참조 ). 國內市場의 비중이 크게 약화되지 않고 있다는 현상은 과거의 수출형태가 단순가공형태였는데 비해 이제는 국내가공과정이 다양해졌다는 기술적 측면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제성장에 연유된 소득수준향상의 결과 國內市場도 消費市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경제적 측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大企業의 생산장소가 대부분 國內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 기업의 海外直接投資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國內에 생산의 근거지를 두고 國內人的資源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雇傭面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공헌을 한 결과가 되었다.

〈表 8〉 大企業의 輸出比重

(單位：億圓，%)

年 度	大企業賣出額 (A)	大企業輸出額 (B)	比 重 ( B / A )
1971	9,744	2,352	24.1
1975	46,136	15,533	33.7
1980	258,004	78,403	30.4
1983	461,773	155,528	33.7
1986	628,223	193,683	30.8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  
關稅廳,『貿易統計年報』

大企業의 또 하나의 특색은 資産중에서 차지하는 自己資本比率이 상당히 낮고(약 20%내외), 借入負債가 많으며 특히 借入負債중에서 銀行借入이 약 60%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製造業全體의 借入負債 가운데 大企業의 借入負債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후반이후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90%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최근 몇년간을 제외하고는 大企業의 資金調達은 有無償 增資, 會社債 發行등 直接金融이 아닌 銀行등 間接金融을 통한 資金調達이 大宗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負債의 증가율은 大企業全體로 보나 6大企業集團으로 보나 80년대에 들어와서 70년대보다 감소해 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自己資本比率이 낮을 뿐만 아니라 所有構

造面에서도 企業集團의 총수나 가족이외가 투자한 비율은 낮다. 예를 들면 1983년에 10大 企業集團의 경우 그룹外 投資比率은 약 40%이며 이는 실제로 名目資本金의 23%에 해당한다. 企業經營의 重役陣에서 가족의 경영지배력은 30%정도이다. 따라서 企業은 所有와 經營支配가 혼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sup>6)</sup>

大企業의 賃金은 中小企業의 賃金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月平均賃金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賃金水準을 100으로 잡으면 大企業의 賃金水準은 1986년에 108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賃金隔差는 生産職에서 보다는 管理職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986년의 中小企業의 生産職賃金水準을 100으로 잡을 때 大企業의 生産職賃金水準은 119인데 반해 中小企業의 管理職賃金水準을 100으로 잡을 때 大企業의 管理職賃金水準은 127임을 알 수 있다.(〈表9〉 참조). 이와 같은 賃金隔差는 유능한 人力資源 특히 大卒이상의 고급관리인력을 大企業이 집중적으로 포섭·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大企業集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어느 한 經濟單位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企業集團의 生成過程과 發展樣相은 企業集團이 처하고 있는 環境條件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사실이다. 여러가지 다른 環境條件이 있겠지만 企業集團에 영향을 준 條件은 國內의 政府政策과 勞動力, 海外市場, 海外技術과 資本과 관련된 조건으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政府의 經濟政策方向은 제 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후 輸出主導的 經濟發展戰略을 세웠다. 輸出戰略에 따라서 政府가 선택한 工業政策은 1960년대의 제 1·2차계획기간(1962-1971)중에는 基礎產業育成과 經工業의 수출화에 치중하였다. 1962년의 울산공업단지 설정, 1964년의 제

---

註6) 정구현(15) pp.150-169 참조.

< 表 9 >

大企業의 賃金 變化推移

( 單位 : 千圓 )

年度	大 企 業			中 小 企 業			比 重 (%)		
	總括 (A)	生産職 (B)	管理職 (C)	總括 (D)	生産職 (E)	管理職 (F)	A/D	B/E	C/F
1980	178	134	293	174	118	222	102.2	113.7	132.1
1981	219	164	353	209	142	264	104.7	115.5	133.5
1982	254	189	401	241	162	305	105.1	116.9	131.3
1983	284	212	442	267	182	332	106.2	116.3	133.2
1984	316	234	471	287	197	353	109.8	118.6	133.4
1985	348	259	512	325	220	400	107.1	117.7	128.1
1986	369	285	527	342	240	415	108.0	118.9	126.9

資料 : 勞働部,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3, 제 4, 제 5 비료공장 설치등이 이것을 말해준다. 1960년대 후반기에造船, 電子, 石油化學, 鐵鋼 등 각종의 工業振興法을 제정하여 鐵鋼, 電子, 石油産業의 육성을 기도하고 섬유, 고무제품등 기존의 輕工業製品의 輸出化에 집중하였다. 제 3차와 제 4차 계획기간 ( 1972-1981 )에는 철강, 비철금속, 造船, 機械 등의 重化學工業건설정책을 세웠다. 重化學工業건설의 所要內資조달과 공급을 위해서 1973년 12월에 國民投資基金法을 제정하고 1974년에 시행하였고 1976년 국민투자기금규모를 확대하였다. ( 1,800 億圓 ). 産業高度화와 國際競爭力 신장을 위하여 1970년대 말에 적극적으로 重化學 ( 주로 鐵鋼, 産業用 機械, 電子부분, 造船 ) 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제 5차 계획기간 ( 1982-1986 ) 동안은 重化學공업의 내실을 건설화하고 自動車, 半導體, 電子通信機 등 知識情報集約的인 공업육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總附加價值生産額중 素材産業의 비중은 1960년대초에는 29%로부터 상승하여 1980년대초에 44%를 정점으로 하여 이후 하향추세

고 1987년에는 35.4%가 되었다. 素材산업중 특히 섬유부문은 1960년대 초에는 전체素材산업의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계속해서 감소하여 1987년에 이르러서는 8.4%의 비중으로 하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組立加工業의 비중은 1960년대초에 7.3%로부터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나타내 1987년 현재 35.9%에 이르고 있다. 組立加工業중 機械産業과 電氣機器産業은 1975년부터 큰 폭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987년에는 이 두 業種이 組立加工業에서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表 10〉 참조). 우리나라의 工業構造의 변천에 힘입어 우리의

〈表 10〉 韓國工業構造 變動推移 (附加價值基準)

(單位: %)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消費財産業	48.6	40.7	34.7	31.8	30.4	28.7
飲食料品	23.5	16.8	14.1	14.0	12.7	11.9
衣服	4.7	6.3	4.4	4.4	4.1	3.9
素材産業	42.1	43.1	44.2	39.8	26.8	35.4
纖維	10.2	12.6	11.3	9.4	8.7	8.4
石油精劑	10.4	6.4	6.4	4.6	4.3	3.6
第1次鐵鋼	1.9	4.0	5.6	5.6	5.1	4.9
第1次非鐵金屬	0.4	0.6	0.9	1.5	1.5	1.5
組立加工産業	9.3	16.2	21.1	28.4	32.8	35.9
金屬製品	1.4	1.7	2.6	2.8	2.8	2.5
機械	1.8	3.2	4.1	5.5	6.6	7.9
電氣機器	2.2	6.0	9.2	11.0	13.8	15.8
運送用機器	3.5	4.5	4.1	8.2	8.7	8.8
精密機器	0.3	0.8	1.2	0.9	0.9	0.9

註: 1980年 不變市場價格 基準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輸出構造도 輕工業부문으로부터 重化學部門으로의 이전을 보여주며 최근에 電氣電子의 구성비는 1980년 이래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表 11〉 참조). 이와 같은 上業構造와 輸出構造의 변천은 우리나라 大企業集團의 産業別 品種多角化추세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表 11〉

輸出構造의 變化推移

(單位: 10억弗, %)

		1970	1975	1980	82-86	1986	1987
輸 出 額		0.8	5.0	17.5	28.0	34.7	47.3
構 成 比 (%)	輕工業製品	68.8	56.5	48.4	39.0	40.9	41.0
	纖 維 類	40.8	36.2	28.2	17.5	22.4	21.4
	重化學製品	13.6	26.1	41.6	57.7	55.5	55.5
	鐵 鋼	3.8	7.2	14.5	7.5	6.0	5.5
	機 械	1.0	1.5	2.7	2.6	2.9	3.4
	電氣・電子	5.3	8.7	9.4	15.6	20.4	23.0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 82-86 數値는 年平均値임.

이 같은 政府의 工業化政策을 추진하기 위해서 政府는 各종의 支援政策을 수반하였다. 그중에 物價上昇에 비해서 낮은 低金利, 換率의 低平價, 政策金融支援, 關稅장벽 등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sup>7)</sup> 이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政府가 다양한 工業化戰略을 세우기 위해서 政府는 특정기업에게 引下制度를 적용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선택된 企業은 國內市場에서의 독점도를 높일 수 있었고 다른 기업의 그 산업으로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택된 기업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市場占有度는 높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기업의

註 7) 이에 대하여 曠승영·이영선(3)과 임원택·변형윤·조순(14) 參照.

不實이 나올 경우는 여러가지 金融措置에 의해서 다른 集團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不實企業자체를 退出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企業集團의 계열사 증가를 가져오게도 하였다.

우리의 경제개발계획은 輸入代替產業의 育成 및 輸出産業化 그리고 輸出構造의 高度化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수출을 전제로 한 産業構造의 변경에서 技術과 資本力을 어느 정도 구비한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國際競爭力 확보에 유리하였고 이것이 정부가 大企業위주로 産業構造改編을 시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大企業이 多邊化를 통해 巨大企業群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곧 정부의 經濟政策的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둘째로 국내에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의 미덕을 가진 풍부한 人力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국민학교과정의 義務教育制度로 인하여 文盲率이 10% 이하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국민의 교육열은 높은 실정이다. 中學校 진학율은 1965년에 54%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가하여 1987년에는 99.3%에 달하였다. 高等學校 진학율은 1965년에 69%로부터 1987년의 89%로 증가되었다. 大學校 진학율은 中·高等學校 진학율보다 낮지만 1965년의 32%로부터 1987년에는 44.3%에 이르렀다. 勞動力은 대부분 高卒以下이기 때문에 專門性을 가진 인력보다 一般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學歷別 入職者數에 의하면 (〈表 12〉), 國卒과 中卒이 1976년 초에는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다소 大卒以上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中卒以下 就業者의 總就業者數에 대한 比率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1987년에는 55%이며 이와 반대로 高卒以上 就業者는 계속 상승추세를 나타내어 1987년에는 45%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의 就業人力은 1980년대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高學歷 人力으로 轉移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12〉

學歷別 入職者數

(單位:百名,%)

年 度	合 計	國 卒	中 卒	高 卒	專門大卒	大 卒
1976	4,355	1,396 (32.0)	1,827 (42.0)	855 (19.6)	52 (1.2)	23 (5.2)
1980	1,676	380 (22.7)	779 (46.5)	386 (23.0)	29 (1.7)	101 (6.1)
1982	6,765	1,193 (17.6)	2,885 (42.7)	215 (31.8)	167 (2.5)	370 (5.5)
1984	9,261	1,130 (12.2)	3,979 (42.9)	3,421 (36.9)	270 (2.9)	460 (5.0)
1986	7,457	699 (9.4)	2,783 (37.3)	3,290 (44.1)	251 (3.4)	434 (5.8)

註: ( )는 構成比임.

資料: 勞動部, 『勞動統計年鑑』.

우리의 勞動力은 근면과 自制를 지니고 있음은 移職率(약 5%이하)이 낮은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개발당시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낮고 따라서 소득에 대한 효용은 높기 때문에 낮은 시간당 賃金率에도 불구하고 長時間 일을 함으로써 總所得을 증가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의지와 대부분 노동자는 專門性을 갖지 않은 일반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특정상품생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떤 生產業種에 필요한 특정한 技術습득능력이 높다. 이러한 노동자는 商品生産에 필요한 勞動供給을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業種으로 진입을 결정할 때 노동력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노동력은 制約要件이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이 기업의 多種化成長을 단시일내에 달성하는데 기여한 큰 요인으로 간주된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國內市場은 低所得水準에 따라 購買力이 낮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海外市場의 需要與件은 상당히 중요하다.



1960년대초부터 우리 輸出市場의 大宗이었던 美國은 自由主義的 貿易主義 무드속에 있었고 非關稅・關稅장벽등은 무시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었다. 물론 1970년말부터 美國市場은 다소 保護主義的 요소를 지니기 시작했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는 거의 無限帶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여부에 관련되어 야기될 수 있는 企業이 부담해야 하는 危險度는 거의 없다고 가정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海外에 무한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기업의 多種化生産에 절대적 요건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商品을 생산하느냐 하는 供給條件에만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네째로 1960년대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技術水準은 상당히 낮은 상태였다.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技術과 부분품은 대부분 海外에서 도입하여야 할 상태였다. 기업의 대부분의 技術은 美國과 日本으로부터 도입되었다. (〈表 13〉참조). 1970년대에 있어서 海外로부터의 技術導入은 용이한 상태였고 重化學部門에 진입할 때인 1970년 후반부터 기업은 많은 技術導

〈表 13〉

國別 技術導入現況

(單位：件數)

	美 國	日 本	西 獨	프랑스	英 國	其 他	合 計
1965	4	-	-	-	-	-	4
1970	20	67	1	-	1	3	92
1975	24	59	1	2	5	8	99
1980	54	124	10	9	4	21	222
1983	362	201	20	10	13	41	362
1986	517	264	23	19	11	43	517

資料：韓國技術振興協會,『産業技術主要統計要覽』.

〈表 14〉

6 大企業集團의 技術導入現況

(單位：件數)

區 分	合計	62-66	67-71	72-76	77-81	82	83	84	85	86
農 · 畜 產	3				1		1		1	
輕 工 業	63		3	7	14	8	12	7	5	7
食 品	4		1		1		1		1	
펄프 · 製 紙	2		1		1					
織 維	52		1	5	10	8	11	7	3	7
窯業 · 시멘트	5			2	2				1	
重 化 學 工 業	931	6	42	68	277	68	97	124	133	116
精 油 · 化 學	120	2	10	11	29	11	18	16	10	13
製 藥	11				1	1	1	3		5
金 屬	27		2		11	1	2	2	5	4
電 氣 · 電 子	327	1	17	18	71	27	39	38	57	59
機 械	337	3	12	36	126	16	23	53	41	27
造 船	109		1	3	39	12	14	12	20	8
社 會 間 接 資 本	73	3	5	10	22	5	7	11	7	3
合 計	1,070	9	50	85	314	81	117	142	146	126

資料：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技術導入契約現況

入을 하였고(〈表 14〉참조), 1980 년도에 이르러 電子와 産業機械 部門에의 技術導入은 현저하게 많아지고 있다.<sup>8)</sup> 大企業은 높은 技術手數料를 지불하더라도 技術導入을 國內外 企業의 合作投資를 통하는 것보다 선호했다. 이것은 기업자체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外國으로부터 기술 도입함으로써 技術의 海外依存度를 가급적 낮게 하고 大企業의 自律性을 유지하려는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1980 년대 초기까지 海外資本市場은 開放的이었고 名目利率은 낮은 상태였다. 國際인플레를 감안할 때 實質利率은 負(-)의 상태도 있었다. 이와 같은 낮은 國際利率과 資本供給은 많은 産業部門에 진입함에 요하는 投資資金을 용이하게 조달하도록 하였다. 海外資本과 技術의 용이한 이용가능성은 새로운 산업에의 業務擴張에 도움된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앞에서 보여준 國內外 條件은 大企業集團이 상품의 다중화를 통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고무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어떤 특정한 산업으로 진입할 때 政府의 直接間接的인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資本導入과 技術導入이 용이하였다. 그리고 國內市場은 關稅와 輸入制限에 의해 보호되었다. 국내 勞動費用은 낮은 수준에 있었고 政府의 低金利融資등에 의해서 資本의 費用도 역시 낮았다. 이러한 낮은 費用은 새로운 산업에의 投資計劃을 용이하게 실현화하게 하고 輸出을 진작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특정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에 따르는 위험은 勞動者와 政府가 대부분 분담하고 실질적으로 企業이 부담하는 위험정도는 낮은 상태였다. 이것이 기업이 짧은 기간내에 압축적으로 大企業集團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大企業集團이 성취한 압축된 發展은 企業家가 창조력을 발휘해서 국내와 해외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人力과 資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겠다.

註 8) 韓國全體에 대하여 附錄 參照.

한편으로, 해외로부터 도입이 용이한 資本과 政府의 적극적인 金融支援은 企業集團이 많은 自己資本없이도 여타 產業으로의 팽창에 필요한 金融資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이 결과로 기업의 他人資本 특히 借入資本에의 의존성은 높게 되고 總資產에 대한 自己資本比率 역시 낮은 수준에 있게 되었다. 1986년의 우리나라의 22%에 비해 日本, 美國 그리고 臺灣의 比率이 각각 27%, 44% 그리고 50% 수준에 있다.

지금까지 國內와 海外的 與件이 한국 大企業集團의 樣相을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였다. 실증적으로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 한 상품의 생산은 資本, 勞動, 技術과 기타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企業의 賣出額은 總資產(自己資本과 借入負債額), 勞動 그리고 여러가지 政策變數등과 같은 供給條件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였다. 企業의 賣出額은 그 企業의 生産程度를 나타내는 變數이다.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begin{aligned} \text{LOG}(\text{ISIXSLS}) = & -12.89 + 1.00 \text{ LOG}(\text{ISIXTA}) \\ & (-4.5) \quad (15.2) \\ & + 0.77 \text{ LOG}(\text{TP}) + 0.36 \text{ LOG}(\text{ER}) \\ & (5.2) \quad (1.4) \end{aligned}$$

$$\bar{R}^2 = 0.9979 \quad \text{SEE} = 0.09 \quad \text{D.W} = 1.39$$

여기서, ISIXSLS : 6개의 분석대상그룹 平均賣出額指數

ISIXTA : 6개그룹 平均總資產指數

TP : 企業 總雇傭人

ER : 對美換率

$\bar{R}^2$  : 조정된 說明係數

SEE : 標準偏差推定值

D.W : 더빈 - 왓슨 test 통계치

本 回歸方程式은 通常最小自乘法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에 의하여 1970 年부터 1986 年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賣出額과 總資產데이터는 6 大그룹의 데이터나 고용에 대한 자료의 결여로 企業全體가 鑛工業部門에 고용한 고용인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回歸分析의 結果는 우리의 假說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검증에서 總資產, 總雇傭과 換率의 變數가 企業의 賣出額을 설명하는 說明力은 거의 99 %이며, 괄호안에 있는 산정된 推定值의 t 값으로 볼 때 이 세가지 변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檢證의 結果에 의하면 總資產의 1 % 증가는 賣出額도 약 1 % 증가를 가져오고, 노동력이 1 % 증가할 때 賣出額은 0.77 % 증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總資產증 政策金融 負債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정부의 金融支援이 企業의 성장에 기여했음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技術借入과 金利 등 여러가지 政策變數들을 사용했으나 換率 이외의 다른 變數는 유의성이 낮고 換率이 企業의 生産額을 결정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만을 얻었다. 따라서 換率의 平價切上은 價格競爭力 신장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賣出額의 신장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企業集團의 多角化속에 숨어있는 진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의 목적은 利潤極大化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定說이지만 賣出額極大化나 만족스러운 이윤확보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9)</sup> 賣出額極大化와 利潤極大化는 장기적으로 相互矛盾的이지 않고 같은 結果로 이행되어 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즉 賣出額極大化는 단기간에 있어서는 수익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는 利潤의 極大化를 가져오게 한다. 韓國의 大企業集團의 목적은 販賣額極大化에 있

註9) Williamson(8) 參照.

고 이를 위하여 多角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政府政策과 政府規制등에 의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특수상품에의 진입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특정산업에 일단 진입하면 國內市場의 독점등에 의하여 판매액 증가는 가능하다. 판매액성장자체가 외향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관습아래서 기업의 성공정도를 측정하게 한다. 나아가서 企業集團이 고용하는 노동력은 西歐에서 말하는 可變的인 生産要素가 아니고 資本과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 없는 固定生産要素라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고용은 종신고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고용이 종신고용인 경우 판매액이 계속적으로 증대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렵게 된다. 고용인원확보라는 견지에서는 판매액증가만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나 주어진 계열사수의 규모확대로 판매액이 증가할 때 被雇傭者의 승진이나 경영의 기회는 한정되어지게 된다. 企業의 販賣極大化目的과 고용자들의 승진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企業의 목표라고 하면 계열사수의 팽창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열사수의 팽창은 회사의 경영팀의 數를 확장함으로써 피고용자에게 경영기회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企業의 販賣額成長目的과 피고용인의 승진욕구는 企業集團의 여러 산업부문에서 참여와 계열사수의 팽창으로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論據下에서 大企業集團의 多角化는 賣出額成長極大化를 위한 수단이라는 假說을 세우고 이 假說을 檢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回歸分析에서는 多角化指數를 定義해야 하는데 기존의 이용되고 있는 재커민과 베리의 엔트로피指數는 6개 對象그룹에 대한 資料의 미비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계열사數에 의하여 대표된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한 계열사내에서 여러 業種에 참여할 수 있으나 長期的으로 볼 때 계열사수와 製品多角化度는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계열사수와 賣出額간의 관계에 대한 回歸分析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text{SIXFN} = \frac{9.63}{(2.25)} + \frac{0.06}{(4.40)} \text{ISIXSLS} + \frac{10.58}{(1.45)} \text{SIXGRS}$$

$$\bar{R}^2 = 0.56 \quad \text{SEE} = 4.86 \quad \text{D.W} = 0.45$$

여기서 SIXFN은 6개그룹 평균계열사수를 나타내는 多角化指數이고, ISIXSLS는 6개그룹 평균賣出額指數, SIXGRS는 6개그룹 평균賣出額指數 成長率이다.

이 回歸分析의 結果에 의하면 多角化정도를 대표하는 계열사수는 賣出額과 正의 關係에 있을 뿐만 아니고 賣出額成長率과도 正의 關係를 가지고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賣出額을 높게 하기를 원하면 계열사수도 많게 되고 賣出額의 成長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열사수도 이에 따라서 성장됨을 알 수 있다. 賣出額과 賣出額成長率이 기업계열사수의 결정을 설명하는 정도는 61.8%이고 유의성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증명되었다. 따라서 賣出額極大化가 企業의 多角化를 가져온 동기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賣出額極大化는 利潤極大化와 밀접한 關係가 있다. 企業이 일정한 이윤 (mark-up)을 유지하려고 價格을 결정하는 한 商品生產費는 賣出額과 正比例로 變化된다. 이와 같은 경우 賣出額의 伸張에 따라 企業의 利潤이 증대하며, 賣出額과 多角化의 程度를 나타내는 계열사수는 正의 關係에 있으므로 계열사수와 利潤은 正의 關係에 있다고 추리된다. 이를 實證的으로 檢證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text{SIXPSR} = \frac{0.90}{(1.05)} + \frac{19.40}{(2.99)} \text{SIXGRFN}$$

$$\bar{R}^2 = 0.33 \quad \text{SEE} = 2.69 \quad \text{D.W} = 2.08$$

여기서 SIXPSR은 6개그룹 평균 純利益指數 / 賣出額指數比率이며,

SIXGRFN은 6개그룹 平均계열사수 成長率이다. 이에 대한 檢證結果도 계열사수가 이윤에 대하여 正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利潤이 계열사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賣出額成長이 계열사수를 설명하는 정도보다는 낮지만(약 50%) 서로 正의 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 역시 간접적으로 多角化의 목적이 販賣額 成長을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지적해 준다.

이상에서 우리는 多角化의 目的이 賣出額增大를 바라는 기업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多角化와 企業의 財政的 安定性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한 産業이나 商品에 전념하여 生産・販賣하지 않고 多品種을 生産・販賣하는 것은 특정상품시장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업의 위험을 감소 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成長에 기여하고 財務構造의 安定化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즉 특정산업을 선택하고 전념하는 것보다 여러 産業을 결합함으로써 危險分散을 가져오고 위험의 기회를 最小化할 것이다. 따라서 多角化는 위험감소화의 過程으로 이해될 수 있다. 企業의 多角化가 企業의 安定性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실증해 보려고, 企業의 財務構造의 安定性的의 代用變數로써 6개그룹의 賣出額에 대한 總負債比率를 택하였다. 企業의 負債比率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판매액이 부채액에 따른 利子支拂을 커버하는 능력이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企業의 財政的 安定度는 감소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自己資本比率의 감소는 危險을 높여지게 한다. 危險分散을 위한 多角化와 安定性間에는 正의 關係가 있기 때문에 賣出額에 대한 負債比率과 多角化間에는 역비례관계, 즉 負(-)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의 檢證結果는 다음과 같다.

$$\text{SIXLSR} = 2.13 - 0.05 \text{ SIXFN} \\ (13.17) \quad (-6.51)$$

$$\bar{R}^2 = 0.72 \quad \text{SEE} = 0.23 \quad \text{D.W} = 0.65$$

여기서 SIXLSR은 6개그룹 算術平均 總負債指數 / 賣出額指數를 나타내



며 SIXFN은 6개그룹 평균계열사수이다.

이 回歸分析의 結果에서 보듯이 多角化의 程度는 負債比率과 負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개그룹의 데이터에 의한 이 分析에서 多角化와 負債比率로 설정한 模型이 약 73%의 說明力( $R=0.7388$ )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t값도 이 推定值가 有效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結果는 多角化가 進行되면 될수록 企業의 財務構造가 더욱 더 健全하게 되며 財政的 危險度를 낮게 한다고 입증해 준다.

이상의 實證分析結果를 총괄적으로 파악해보면 企業의 多角化成長을 기도하는 目的은 賣出額極大化와 財政的 危險度를 분산하려고 하는데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大企業의 非關聯的 多角化를 통한 成長은 우리 경제가 低開發途上國으로서 가지는 不完全한 지식과 경제속에 기존하고 있는 人力, 知識, 資本 등을 총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企業家의 노력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企業家의 노력이외에도 企業發展이 처한 環境 자체가 정부와 노동자에 의해서 좌우되었기 때문에 大企業集團의 成長樣相 역시 정부와 노동력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企業集團의 성장과 양상은 企業과 政府 그리고 勞動者들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企業集團의 多種化는 資源(資本, 人力, 技術등)의 공동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企業의 중요한 목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인력들을 유치하고 규모의 경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小規模의 경제에서 생산할 수 없는 規模의 經濟와 技術을 요구하는 自動車, 電子등 尖端產業으로의 진로로 진전하게 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大企業 發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면도 있지만 大企業集團의 成長은 經濟的 集中力을 크게 하고 競爭的 市場形成을 약화시켜 國內消費者의 후생증가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技術이 낮은 단계에서 大企業集團이 多角化함에 사용한 技術은 대부분 외국에서 용이하게

도입된 것이므로 국내에서 技術開發을 조장할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技術과 素材部品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中小企業이 育成되지 못한 결과도 가져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大企業에서의 人材에 대한 勞賃은 中小企業등의 勞賃보다 높기 때문에 中小企業에서 勞動者를 끌어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여 의도적은 아니지만 中小企業 生産活動에 간접적으로 저해한 결과도 가져왔다고 해석되어진다.

### 第 3 章 環境變化와 大企業의 對應

상술한 바와 같이 大企業集團이 發展되어 온 양상은 政府政策, 勞動力 그리고 外的 條件에 의해서 影響을 받았다. 大企業集團이 우리 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經濟의 發展의 速度와 폭은 大企業集團의 發展의 程度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大企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극히 重要的 課題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大企業集團이 직면할 對內環境 - 政府政策과 勞動力과 對外的 條件 - 市場과 技術에 대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80年代初부터 政府는 종전까지의 政府主導의 經濟成長戰略에서 市場條件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政策이 강구되었고 최근래에 와서 政治的 民主化에 따라서 政府政策은 民間主導와 市場價格條件에 의해서 하는 方向으로 轉換되었다. 지금까지의 기업에 대한 輸出支援 等 政府의 직접적인 지원은 감소되고 政府政策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企業이 成長할 수 있는 環境을 창조한다는 方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政府가 量的으로 支援하던 金融支援, 利子率調整 等은 피하게 되고 國內金融市場의 자율적인 행위에 따라서 國內利子率과 資金需給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과거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실질적으로 政府의 規制下에 있었고 노동쟁의같은 것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국내 政治的 民主化속에서 勞動者는 勞動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일하는 環境條件의 改善等을 要求하게 되었다. 우리 經濟는 현재 1인당 GNP가 3,000달러로 증대하였고 계속해서 1人當 GNP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所得水準의 增

가에 따라서 所得增加에 대한 한계효용가치가 저하되며, 이것은 勞動者의 일을 하려는 인센티브를 저하시키고 餘暇를 택할 의향을 크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勞動時間이 단축되고 賃金率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구증가율의 둔화 특히 농어촌지역의 人口增加率의 減少는 단순노동력의 공급을 둔화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 産業構造가 勞動集約的 으로부터 資本·技術集約的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필요한 고급 노동력의 수요는 증가함에 비하여 國內供給의 增加는 미흡한 상태를 야기 하게 될 것이다.

對外的으로 봐서 海外市場條件과 技術移轉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1980年부터 우리 商品에 대한 規制 특히 美國으로부터의 規制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에 있었다. 우리의 貿易規模도 현재 세계 第12位의 貿易國으로 擴大되었다. 이러한 우리 經濟의 위치와 최근 계속되는 貿易黑字는 輸出對象國에서 保護貿易主義的인 여러가지 關稅·非關稅장벽을 높였고 換率切上과 國內市場開放 壓力을 가중하게 할 것이다. 결국 國內市場이 開放化되는 方向으로 진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大企業集團의 主市場인 美國市場에서 나타나는 通商摩擦등은 美國自體의 財政赤字·貿易赤字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企業이 직면할 海外市場은 1970年代와 같이 고무적인 環境이라기 보다는 도전적인 環境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주는 징표라 하겠다.

1970年代에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借入은 용이했다. 앞으로 技術導入은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技術導入은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經濟가 技術을 창출하는 나라 즉 일본이나 미국과 경쟁적 관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진개발국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技術을 이용하여 우리와 海外市場에서 競爭的인 國家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같이 大企業集團의 환경조건은 종전에 있었던 바와 같이 정부나 노

동측면에서의 위험부담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海外市場에서의 商品需要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海外輸出市場에서 부담하는 危險度는 높아지고 企業의 生産販賣過程에 따른 危險度를 감수해야 할 환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海外技術의 利用可能性과 海外市場의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變化速度를 과거보다 훨씬 둔화시킬 것이다. 자기의 위험에 의하여 企業의 投資를 決定해야하므로 투자에 필요한 費用과 期待便益條件이 투자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가능했던 投資도 장래의 費用-便益分析에서는 가능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企業은 새로운 商品製造, 市場進入에 기업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결정해야만 할 입장에 있게 되므로 非關聯的 多角化 成長으로부터 專門性을 강조하는 關聯的 多角化成長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經營面에서나 成長面에서 위험부담을 저야 하기 때문에 經營스타일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규모가 커지고 품질의 다양화는 전문적 지식없이 경영에 관련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렵게 만든다. 종전까지 라인시스템(line system)으로 가능했던 經營方式은 특정한 계열사나 製品生産過程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스태프중심의 經營方式(staff system)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企業經營이 專門化함에 따라서 所有와 經營이 서서히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所有와 經營의 분리, 自己資本比率의 제고 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또 다른 논리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최근의 企業環境 變化 즉 經濟의 自律化 및 國際化, 經濟의 民主化 등은 經營의 危險度 增加로 요약될 수 있다. 증대된 企業危險을 줄이기 위한 經營技術의 확보측면에서 所有와 經營의 분리가 필요하며 높아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방어능력으로서 自己資本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所有와 經營의 분리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은 비교적 고무적인 與件속에서 成長하였으나 최근의 環境變化로 과거와 같은 여건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政府主導下의 經濟運用에서는 經濟政策에 따라 정책적 배려나 지원이 있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의 民間主導下에서는 市場機能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즉 勞動, 資金, 원재료 등이 개별 市場의 需給에 의해 需要供給이 결정되면서 企業은 그 결정사항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된다. 여기에다가 經濟의 國際化와 더불어 競爭要因은 더욱 많아짐과 아울러 國內市場이 海外市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어 市場의 움직임은 더욱 불규칙해 질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는 여러가지 業種에 참여하고 있는 大企業集團을 창업주라 하여 1인이 경험에 따라 경영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一個 企業이라 하더라도 자본주보다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또는 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업주에 의해 경영되거나 그 2세에 의해 승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그들이 專門經營人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훈련을 충분히 거쳤다면 경영인의 자격으로 기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별개의 問題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본소유자라는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大企業의 경우 우수한 人力의 확보에 성공하였고 또한 이들의 충만한 成就動機와 아울러 平生職場에 대한 愛社心등을 전제로 할 때 많은 專門經營人이 배출될 수 있는 좋은 기초를 다져놓았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 의사결정방식의 전환등을 통해 與件變化에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所有와 經營의 분리가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市場機能에 의한 經濟로의 移行을 예견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낮은 自己資本比率이라 하겠다. 종전까지 우리나라의 金利는 저축증대측면에서 高金利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없

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企業資金負擔의 경감을 위한 低金利基調가 維持되었었다. 이의 배경은 모든 企業들이 借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金利가 資金需給에 의해 결정되고 전반적으로 經濟 各 部門에서 自律화된다면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景氣循環과 利子率變動의 심화를 경험할 것이 분명하다. 景氣變動은 市場經濟가 지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고 이의 제거 또는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피할 수는 없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石油波動期나 社會的 激變期를 제외한 여타의 景氣低點에서도 高度成長을 이룩하는등 사실상 景氣變動을 크게 경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景氣變動이 확연히 나타날 전망이다. 景氣變動이 증폭되어 不景氣로 접어들 경우 종전과 같은 추가적인 資金支援이나 金利上の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현재의 낮은 自己資本比率下에서는 기업자체의 존립은 크게 위협받을 우려가 다분하다. 自己資本比率의 增大必要性을 景氣變動과 결부시키지 않아도 최근의 金融自律化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黑字到産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아지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自己資本의 충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自己資本比率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겠다. 自己資本比率을 높이려면 결국 資本金의 납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大株主는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新入金에 대한 부담이 수반될 수도 있다. 따라서 增資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普通株의 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無議決權株(non-voting stocks) 등 조건부 주식발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證券市場이 완전 개방되었을 때 외국의 巨大資本에 의한 國內企業支配를 배제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會社債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會社債 발행에 의한 資金調達은 銀行借入등 間接資本調達보다는 안정적인 資金調達源이기 때문에 自己資本과 비슷한 특질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앞으로

金融市場의 발달방향과 결부하여 볼 때 우리 기업들이 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國際市場에서 企業이 직면하는 상당히 어려운 經濟環境과 마찬가지로 經濟開放化에 따라 國內市場에서도 역시 競爭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같은 어려운 經濟環境아래서 판매증가를 위해서는 상품의 價格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기업이 고려하지 않았던 販賣伸張을 위한 서어비스, 販賣組織서어비스, 品質向上 등이 한층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商品開發이 商品의 需要를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大企業은 日本·美國에서 종래와 같이 技術을 용이하게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技術開發과 創造는 컴퓨터를 이용한 電算化를 중심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技術, 知識, 技術革新은 모방하기가 어렵게 되고 技術의 壽命周期는 상당히 단축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상태에서 大企業이 계속 尖端產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大企業 자신이 技術의 研究 및 開發投資를 통해서 자체적인 새기술을 창출하고 技術開發을 하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GNP 당 科學技術投資는 1963年の 0.19%에서 계속 상승하여 1987年の 2.2%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民間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은 1970년에 平均 약 35%에서 1987년에 72%로 상승하였다 (<表 15> 참조). 이와 같은 GNP 당 科學技術投資는 日本이나 美國 등의 先進國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기존하는 技術蓄積이 美國이나 日本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技術投資水準이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製造業部門의 企業의 賣出額 對比 研究開發費는 1980년에 0.5%이나 증대되어 1986년에는 1.6%로 되었으나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



<表 15>

科學技術投資現況

(單位：億圓)

年 度	金 額	政 府 負 擔		民 間 負 擔		對 GNP 比 率 (%)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1965	14	-	-	-	-	0.26
1972	145	104	71.7	41	28.3	0.35
1975	620	351	71.2	142	28.8	0.61
1980	3,169	2,145	67.6	1,024	32.3	0.86
1983	7,282	2,772	38.1	4,510	61.9	1.23
1986	16,663	4,334	26.0	12,329	74.0	1.99
1987	20,630	5,776	28.0	14,854	72.0	2.20

資料：科學技術處,『科學技術年鑑』.

<表 16>

企業體の研究開發費

(單位：百萬圓)

年 度	全 產 業			製 造 業			企業體研究 員 1人當 研究開發費
	研究開發費 (A)	賣出額 (B)	比 重 (A / B)	研究開發費 (C)	賣出額 (D)	比 重 (C / D)	
1978	53,802	8,989,781	0.60	50,866	7,067,532	0.72	12.5
1979	59,295	19,150,846	0.31	54,511	16,759,214	0.33	13.6
1980	81,352	17,145,300	0.47	75,966	15,188,966	0.50	15.8
1981	120,654	22,214,277	0.54	111,765	16,760,317	0.67	16.8
1982	205,002	40,311,657	0.51	188,533	29,192,891	0.65	20.6
1983	375,810	56,530,231	0.66	342,841	42,381,910	0.80	29.9
1984	528,295	51,777,759	1.03	493,522	37,895,365	1.30	33.8
1985	751,025	61,164,549	1.23	688,586	45,655,401	1.51	39.5
1986	1,021,653	75,564,779	1.35	935,080	57,472,131	1.63	44.6

資料：科學技術處,『科學技術年鑑』.

다고 하겠다(1987년에 있어 電子部門은 3.4로 가장 높음). 企業體 스스로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商品의 開發과 生産을 위한 연구노력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表 16〉참조).

大企業이 단기간에 모든 製品을 生産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教育만을 받은 勞働者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勞動力은 가장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公유를 가진 보편기술을 획득하기는 용이하고 신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經濟의 成長初期에 기대되는 勞働集約的이고 單純技術製品의 生産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技術集約的이고 高度화된 産業으로의 成長은 一般的인 教育을 받은 勞動力은 물론 合理的인 思考方式을 가진 專門勞動力도 필요하게 된다. 高度화된 産業에 필요한 勞動力의 確保를 위해서 大企業은 雇傭된 勞動力에 대해서 기업특유의 기술(firm specific technology)나 체제특유의 기술(system specific technology)을 기업자체내에서 再教育의 機會를 통하여 습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는 勞働者에 대하여도 택일적 결과만을 강조하는 教育에서 오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논리적 사고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케 하는 教育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勞働賃金은 比較的 높은 率로 상승될 뿐만 아니라 勞働者가 生活水準向上을 위한 實質賃金上昇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勞賃上昇要求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勞使紛糾가 실제 行動으로 나타나 勞働爭議 등이 발생할 경우 生産에 막대한 阻害를 줄 우려도 있어 勞働市場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勞働市場의 不安定이나 賃金上昇은 價格引上要因이 될 것이다. 따라서 高賃金과 勞働爭議 등의 勞働市場條件은 國內에서의 生産活動을 저하시키고 海外에서 생산할 動機를 부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보다는 大企業集團이 海外投資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에 따라 海外直接投資의 확대를 통한 多國化生産方式(globalization)을 택함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美國이나 日本 등의 大企業들이 生産基盤을 低賃金의 安定한 勞働市場이 있는 海外로 진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大

企業도 低賃金の 安定한 勞動을 조달할 수 있는 海外로 그 生産基盤을 이전함이 기대된다.

勞動者의 高賃金과 資本集約的인 産業으로의 전환과 海外投資의 活性化는 生産에 要求되는 國內勞動需要의 減少要因이 된다. 이에 따라 企業의 勞動需要에 대한 利害(interest)와 政府의 雇傭增大를 위한 目的이 서로 위배되는 方向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大企業은 國際를 무대로 하여 의사결정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政治는 國內라는 地域의 限界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므로 이들의 利害相衝은 美國등의 先進國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피하기는 어렵다. 이는 國內政治의 不安定을 유발하고 企業과 勞動者間의 갈등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의 기회를 最小로 現實化하기 위해서 大企業은 勞動集約的이고 素材品 공급원인 中小企業이 육성되도록 中小企業 高유의 영역을 보장해 주고 專門化된 部品生産에 전념할 수 있게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즉 大企業 生産基盤의 海外移轉에 따라 초과되는 勞動力을 中小企業이 흡수하고 中小企業은 이 勞動力의 흡수에 따라 專門化된 生産을 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

人口 1,000명당 우리나라의 中小企業數는 3.5개사이며 日本과 臺灣은 각각 7.2와 6.4개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中小企業이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 보여온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대립적 競爭關係는 지양되어야 하고 大企業을 보완하는 協調體制의 相互關係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組立製品의 部品을 생산하는 中小企業의 體質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對外競爭力도 강화될 것이다. 部品을 生産하는 中小企業의 競爭力強化는 곧 大企業의 競爭力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相互補完的 關係를 가지고 성장한다는 意識構造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中小企業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大企業은 技術者과견, 經營者教育, 研修機會擴大 等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大企業은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 競爭이 심화되고 자기위험을 감수하고 성장해야 할 환경에 앞으로 직면한다고 할 수 있다. 위험을 가진 경쟁적 環境속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企業自體內의 體質을 強化하고 가장 效率的인 運營을 기도해야 한다. 특히 賃金, 換率, 金利와 市場條件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속에서 企業을 運營해 나가기 위해서는 自體內에서의 技術開發, 人力育成 등을 통한 生産性 向上이 기도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外向指向的, 量的, 非關聯多角的 成長을 지양하고 質的, 專門性을 강조하는 關聯多角的 成長戰略이 채택되어야 한다. 經營面에서도 所有와 經營의 분리, 財務構造의 安定化 등을 강조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環境變化에 따른 위험에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對應할 力을 가진 體制構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企業은 政府和 勞動者와 마찬가지로 우리 經濟의 한 經濟單位이다. 우리 經濟는 國際化하고 自律的인 市場條件下에서 運營되는 方向으로 전환될 것이고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方向으로 우리 經濟가 成長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政府和 企業 그리고 勞動者를 포함한 각 經濟單位가 자기 高유의 比較 優위에 따라 자기 義務를 自律的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競爭原理에 따라서 각 經濟單位는 자기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經濟單位間에는 目的이나 手段使用에 있어서 충돌할 確률은 높다. 그러나 國家全體의 立場에서 볼때 충돌가능성을 극소화함이 필요하며 이것은 각 單位的 自律的인 자세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 특히 企業은 勞動者가 自社商品에 대한 需要者라는 觀點에서 勞動者에 대한 처우나 작업 環境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經濟의 한 單位로서 企業은 國家經濟全體의 원동력인 投資를 관리하고 利潤을 극대화할 義務를 일차적으로 수행 하면서도 다른 經濟單位와 조화롭게 國家全體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도 그 目的이 있음을 인식하고 經營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基本자세를 가지고 기업이 運營될 때 우리 기업은 우리 經濟안에서 자라고 존경받는 經濟單位가 될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 第 4 章 結 言

大企業의 發展速度는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製造品을 포괄하는 多角化를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단시일안에 성취하였다. 이와 같은 압축된 성취는 주어진 國內, 國際環境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企業家의 창의력의 소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企業家 못지않게 우리나라 企業成長의 원동력은 政府政策과 勞働者들이 환경이나 업종변동에 직면하여 하면 된다는 확신속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大企業은 民主化되고 國際化되는 國內環境과 保護貿易主義的이고 競爭이 심화되는 國際環境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大企業의 성장은 상품생산의 특화, 경영의 전문성, 勞働生産性 향상과 技術創造 등 기업자체의 體質 강화를 통하여 달성가능할 것이다. 企業體質強化는 內外環境變化에 대한 필수적인 對應策이지만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企業經營理念의 定立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적 成長政策과 投資를 위한 利潤追求 以外에도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 존재하는 不均衡 是正에 積極的으로 參與함으로써 우리 經濟의 均衡的 成長에 貢獻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大企業이 변화하는 環境에 伸縮性 있고 責任性 있게 어떻게 대응하고 성장을 持續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大企業의 성공이 우리 經濟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임은 틀림없다. 과거에 역경을 극복하고 成功達成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企業家 뿐만 아니라 企業에 관계된 개개인의 적응능력을 통하여 大企業이 계속 진전해 나갈 것이라고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國內文獻〉

1. 강철규, “企業과 市場組織”, 임원택·변형운·조순등, 『韓國經濟의 理解』, pp.89 ~ 117.
2. 郭承滌, 李榮善, 『韓國經濟의 構造와 政策』, 韓國經濟新聞社, 1984.
3. 郭承滌, “美 元貨切上壓力과 韓國經濟”, 韓國經濟新聞, 1987. 7.24.  
\_\_\_\_\_, “換率變動의 輸出入價格에의 轉嫁度와 示唆點”, 韓國經濟研究院 政策세미나, 1988. 5.16.  
\_\_\_\_\_, 『韓美通商現況에 대한 理解』, 1988.12.  
\_\_\_\_\_, “韓國經濟의 成長과 均衡의 課題”, 第3次 國際韓國人經濟學者 學術大會 論文集(1988.8.2 ~ 8.6)
4. 김기영, “韓國企業의 技術導入戰略과 導入交渉力”, 이학중·정구현 外, 『韓國企業의 構造와 戰略』, pp.299 ~ 330
5. 김재원,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總要素 生産性 比較, 製造業, 1970 ~ 79』, 韓國開發研究院, 1984.
6. 김중웅, “産業發展과 政策金融”, 『韓國開發研究』, 1986. 봄號, pp.43 ~ 75.
7.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韓國企業의 現況과 課題』, 서울대학교 출판부.
8. 박현채·정운형·이경의·이대근編, 『韓國經濟論』, 가치, 1977.
9. 李奎億·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院, 1985.
10.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韓國開發研究院, 1987.
11. 李鍾允, 『企業集團의 形成메카니즘과 評價』, 韓國經濟研究院, 1987.

12. 이학중·정구현外, 『韓國企業의 構造와 戰略』, 법문사, 1986.
13. 임원택·변형윤·조순등, 『韓國經濟의 理解』, 比峰出版社, 1987.
14. 정구현, 『韓國企業의 成長戰略과 經營構造』, 상공회의소, 1987.
15. 조동성, “韓國企業의 多角化戰略”, 이학중·정구현外, 『韓國企業의 構造와 戰略』, pp.207 ~ 233.
16. 趙 淳, “韓國經濟發展 40年—그 特性과 問題點”,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4회 經濟學심포지움, 1988.12.
17. 조일흠·이성규, 『韓國企業그룹의 多角化戰略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7.
18. 中小企業銀行, 『主要國의 中小企業關聯統計』, 1984. 4.
19. 신유근, 『韓國企業의 特性과 課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20.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_\_\_\_\_,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 <外國文獻>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Various Issues.
2. Jwa, Sung Hee, "Korea's Exchange Rate Policy-system, Effect and Issues", KDI Working Paper No.8802, January 1988.
3. Kono, Toyohiro, *Strategy & Structure of Japanese Enterprises*, M.E. Sharpe, 1984.
4. Koutssoyiannis, *Non-Price Decisions, The Firm in a Modern Context*, MacMillan Press, 1982.
5. Kwack, Sung Y., "Korea's Exchange Rate Policy in 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World Development*,

1, January 1988.

\_\_\_\_\_, "Exchange Rate Management of Korea:  
Review and Suggestions", August 1987.

6. Leibenstein, Harvey, *Inside the Firm-The Inefficiencies of Hierach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7. McMillan, Charles J., *The Japanese Industrial System*, Waler de Gruyter, 1985.
8. Williamson, John, "Profit,Growth and Sales Maximiza-  
tion", *Economica*, February 1966, pp.1-16.



# 附 表



< 附表 1 >

6 大企業集團の業種別・年度別 技術導入現況

(單位：件數)

	合計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農・畜産	3					2														1		1			1		
輕工業	63						1	1	1			1	4		1	1		1	5	6		2	8	12	7	5	7
食品	4								1										1				1			1	
皮革・製紙	2					1												1									
纖維	52							1				1	3			1			4	4		2	8	11	7	3	7
窯業・シメント	5												1	1						2						1	
重化學工業	931	1			1	4	2	5	8	19	8	7	7	16	21	17	30	77	60	50		60	68	97	124	133	116
精油・化學	120	1		1		1	1	1	6		1	1		2	3	5	4	2	13	7		3	11	18	16	10	13
製糖	11																					1	1	1	3		5
金屬	27									1	1							1	2	5		3	1	2	2	5	4
電氣・電子	327				1	1	2	4	7		3	2	1	5	8	2	5	15	14	21		16	27	39	38	57	59
機械	337				3		2	3	5		2	4	5	8	9	10	15	49	26	17		19	16	23	53	41	27
造船	109									1		1	1	1			5	9	2	5		18	12	14	12	20	8
社會間接資本	73		1		2	2	1	2			1	1	2	1		5	5	3	5	8		1	5	7	11	7	3
合計	1,070	1	0	1	1	6	5	7	11	19	8	9	12	18	23	23	35	81	70	65		63	81	117	142	146	126

資料：韓國産業技術振興院，技術導入契約現況

〈附表 2〉 韓國의 業種別・年度別 技術導入現況：1962～1986

(單位：件數)

年 度	合計	62-66	67-71	72-76	77-81	82	83	84	85	86
農 畜 產 業	26		6		5	3	4	5	1	2
經 工 業	474	10	28	43	112	59	57	66	48	51
食 品	146	2	6	7	30	21	21	24	19	16
펄프・製紙	17		4	3	7	2		1		
織 維	206	7	7	24	41	27	30	31	15	24
窯業・시멘트	105	1	11	9	34	9	6	10	14	11
重化學工業	3,175	19	228	348	983	216	260	322	369	430
精油・化學	660	5	59	85	194	44	50	64	64	95
製 藥	113	2	17	8	31	12	6	19	5	13
金 屬	291	1	28	45	105	24	22	21	24	21
電氣・電子	832	5	65	84	205	60	79	78	125	131
機 械	1,129	6	58	116	403	62	82	123	126	153
造 船	150		1	10	45	14	21	17	25	17
社會間接資本	380	4	23	43	125	30	41	44	36	34
合 計	4,055	33	285	434	1,225	308	362	437	454	517

資料：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技術導入契約現況

〈附表 3〉 韓國의 業種別 技術導入代價支給 現況：1962～1986

(單位：百萬弗)

年 度	合 計	62-66	67-71	72-76	77-81	82	83	84	85	86
農 畜 產 業	9.1	-	0.5	1.5	4.6	1.0	0.6	0.3	0.4	0.2
輕 工 業	119.6	0.2	1.2	11.2	38.9	5.9	11.0	13.3	11.6	25.8
食 品	21.7	0.0	0.2	1.9	3.3	1.4	2.4	3.3	3.2	6.1
필름·製紙	8.2	-	-	0.1	7.3	-	0.1	0.2	0.3	0.1
纖 維	49.6	0.2	0.8	1.2	18.2	1.7	4.3	5.4	4.0	6.6
窯業·시멘트	40.1	-	0.2	0.8	10.1	2.8	4.2	4.4	4.1	13.0
重化學工業	1,264.6	0.4	11.8	78.1	327.9	85.7	101.8	152.3	207.9	298.7
精油·化學	329.0	0.3	7.5	24.8	147.4	24.4	19.6	30.2	30.0	44.9
製 藥	16.6	-	0.2	1.0	0.7	0.4	1.5	2.8	3.2	6.8
金 屬	92.8	-	1.0	22.9	31.9	4.4	7.3	7.1	8.6	9.5
電氣·電子	375.5	0.1	2.0	10.7	47.4	20.2	30.6	50.2	80.0	134.2
機 械	342.2	-	1.1	13.4	89.3	20.6	25.1	49.4	53.5	89.7
造 船	108.5	-	-	5.1	11.2	15.7	17.7	12.6	32.6	13.6
社會間接資本	356.6	0.2	2.8	5.9	79.6	23.1	36.1	47.3	75.6	86.3
合 計	1,749.9	0.8	16.3	96.5	451.4	115.7	149.5	213.2	295.5	411.0

資料：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技術導入契約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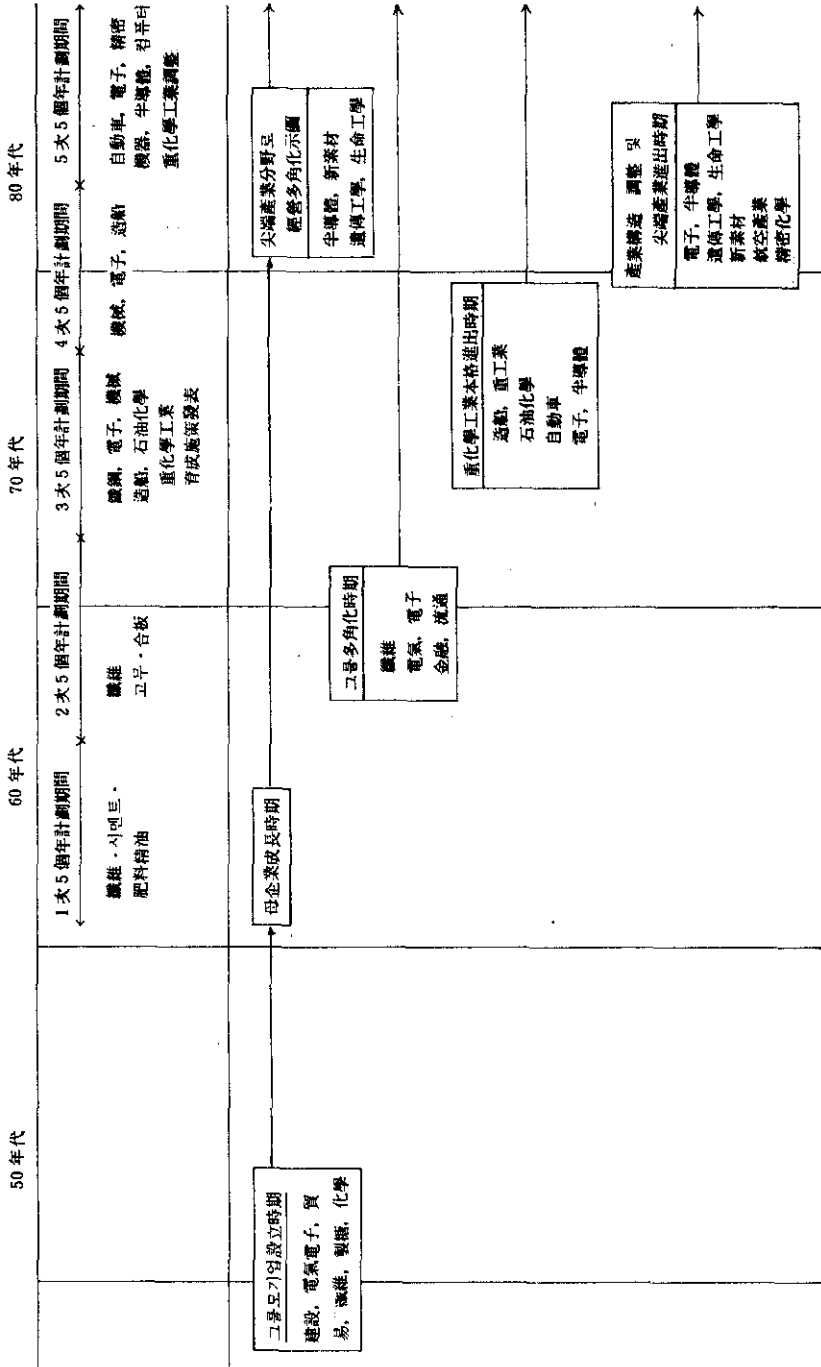
# 附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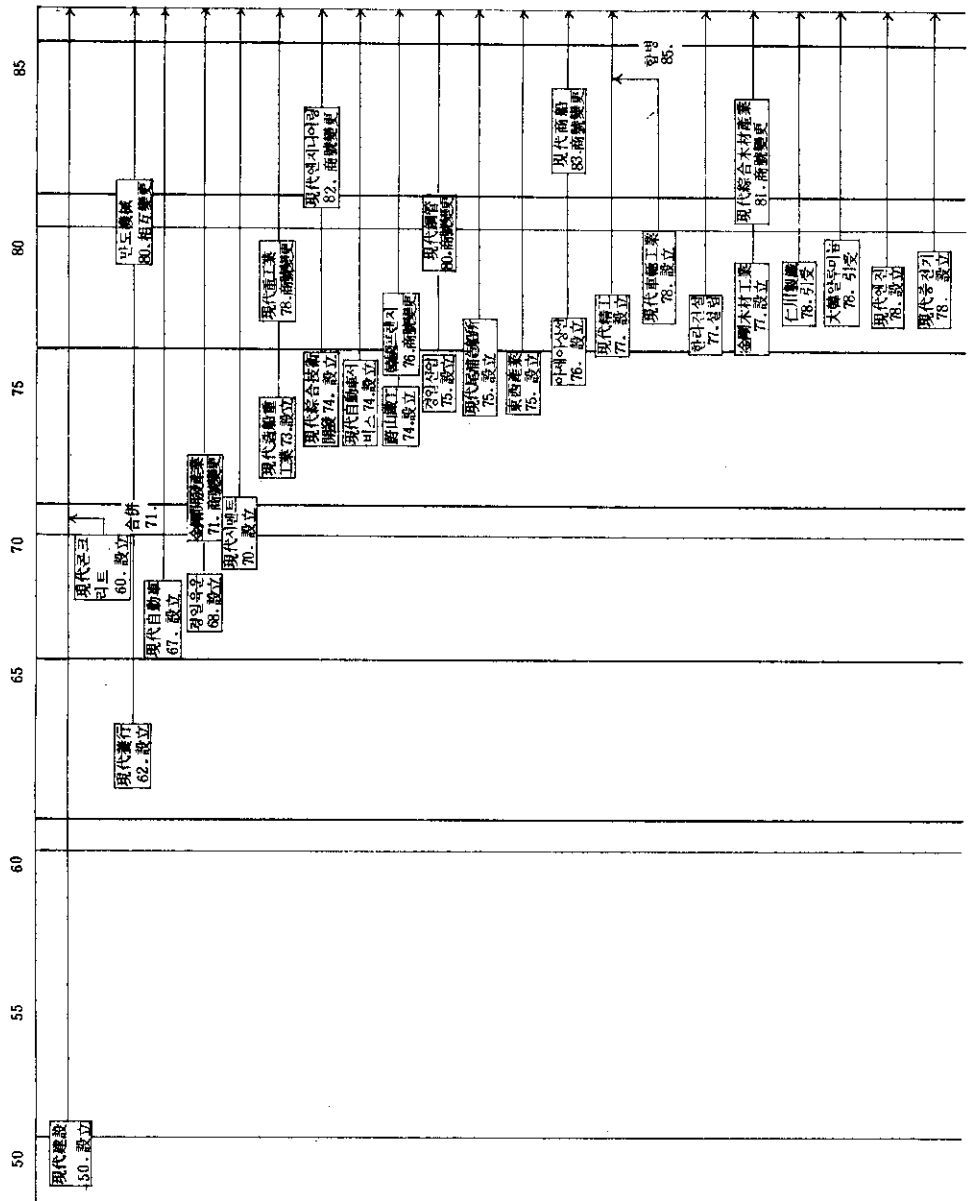


〈附圖 1〉

6 大企業集團의 多角化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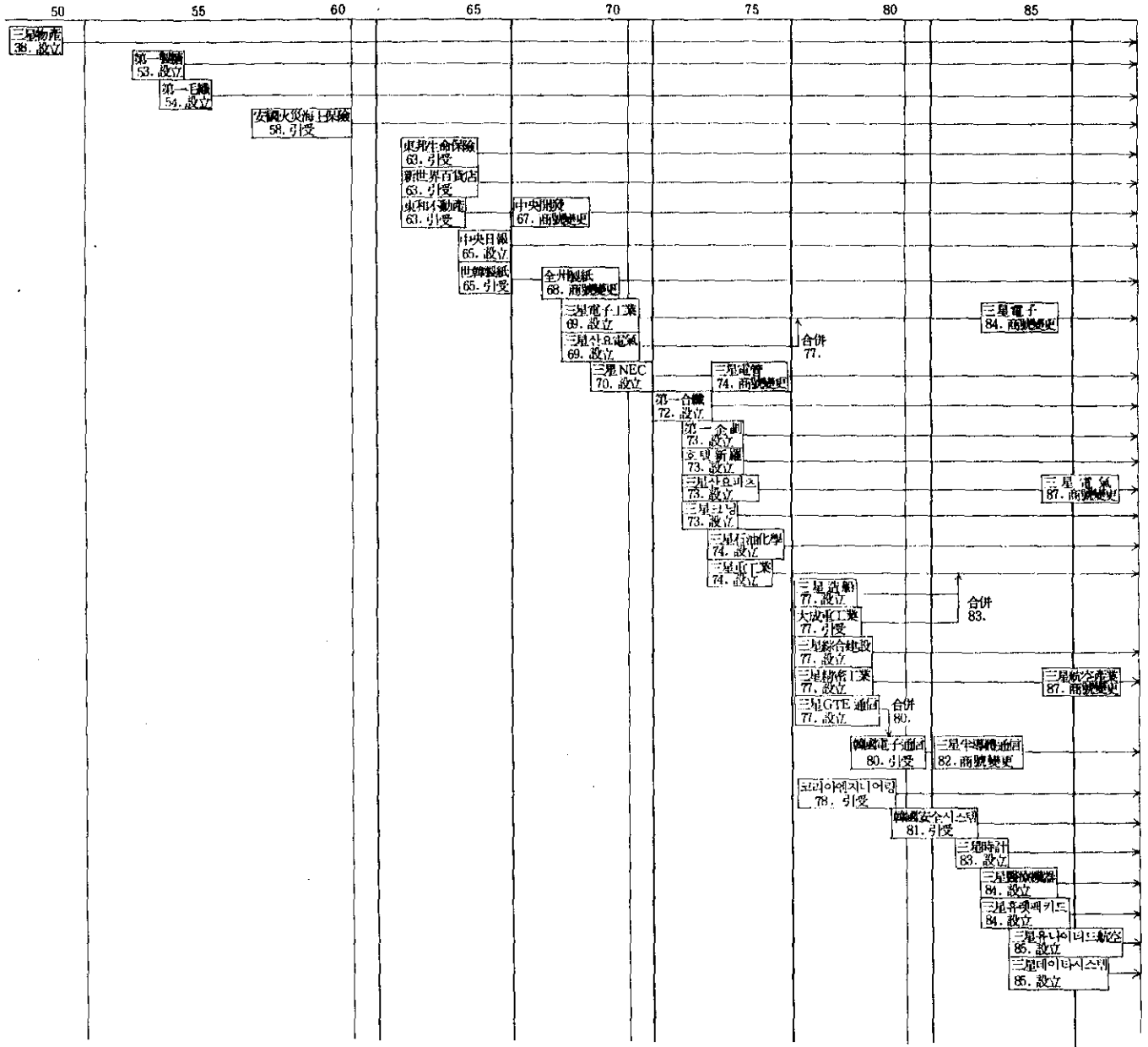


〈附圖 2〉 現代그룹의 多角化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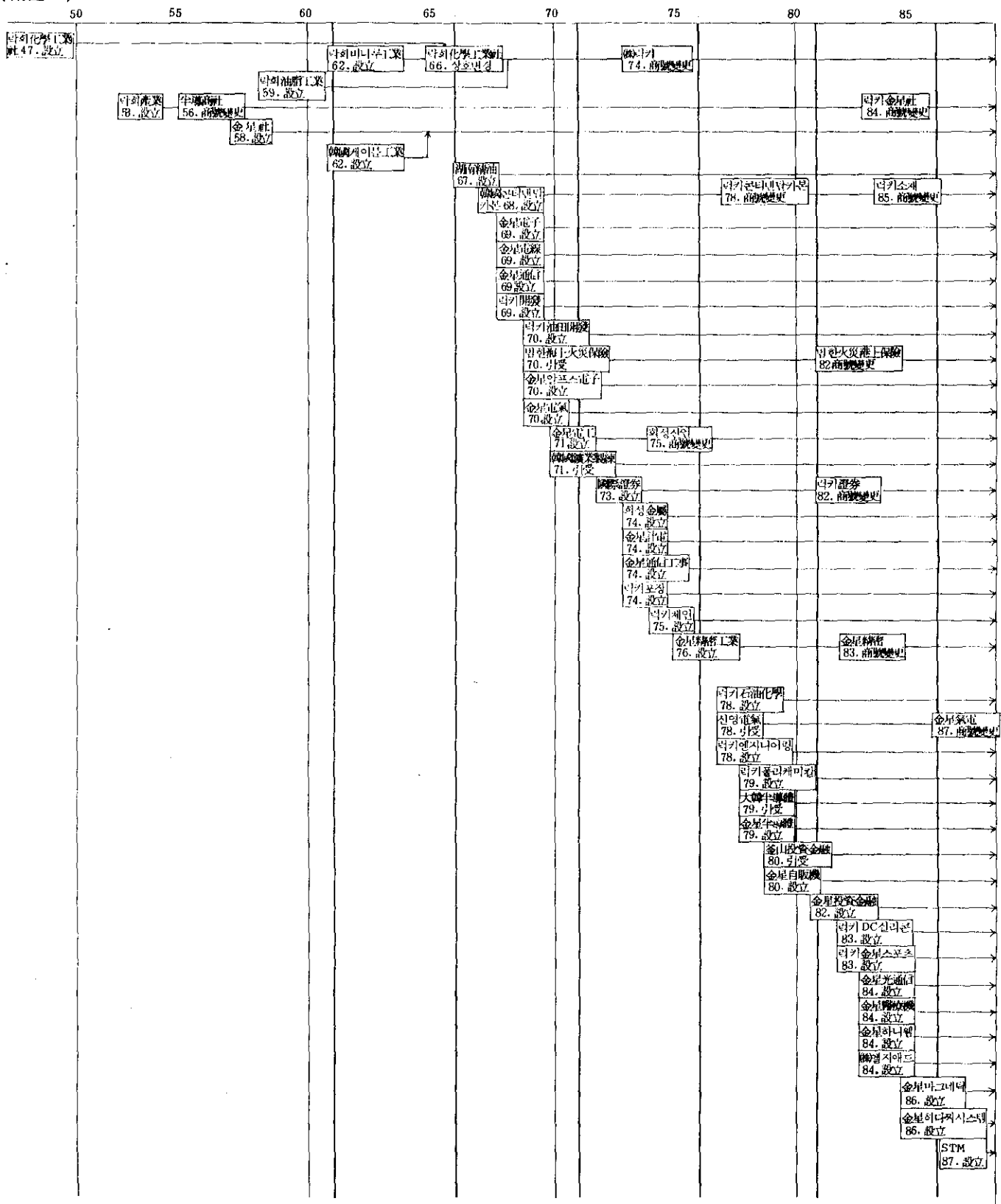
< 附圖 3 >

三星그룹의 多角化 過程



< 附圖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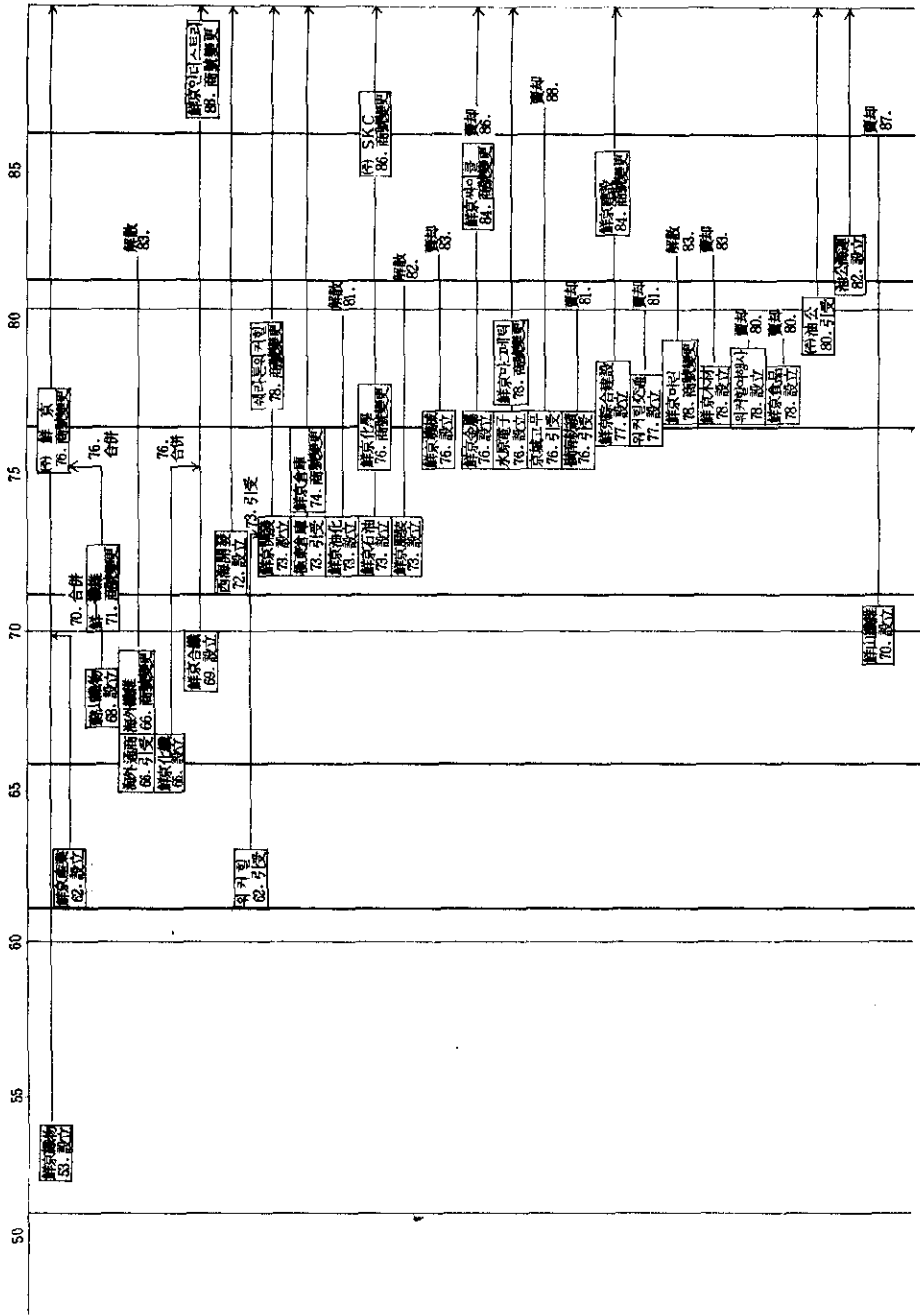
럭키金星그룹의 多角化過程





〈附圖 6〉

鮮京二島の多角化過程



## 韓經研 主要 發刊圖書 案內

### 研究叢書

研 究 叢 書	研究責任者	發 行 年 月
1. 現行稅制의 綜合評價와 1982 年度 稅法 改正方向研究	車 軒 權 金 鎮 炫 外	1981. 8
2. 韓國經濟 短期豫測模型	韓 成 信 田 大 洲	1981. 9
3. 우리나라 企業의 人件費支拂能力評價와 賃金對策	崔 棟 圭	1982. 2
4. 韓國企業의 成長 및 財務行態	具 石 謨	1982. 4
5.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관한 研究	韓 昇 洙	1982. 6
6. 韓國의 私金融市場에 관한 研究	具 石 謨	1982. 7
7. 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관한 研究	全 紘 九 李 泰 魯 外	1982. 9
8. 所得稅體系 合理化를 위한 基礎研究	李 亨 純	1982.10
9. 財政機能의 再調整과 行政機能 官僚制度의 改編方案 研究	姜 信 澤 韓 昇 洙	1982.10
10. 韓國租稅文化의 反省과 稅制의 綜合改善 方向	黃 一 清 金 鎮 炫 外	1982.10
11. 稅收推計模型의 精密化와 中長期 稅收 展望	車 軒 權	1983. 5
12. 韓國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理論的 考察과 負擔水準의 實證的 分析	林 陽 澤 崔 明 根	1983. 6
13. 段階的 貿易自由化에 對應한 關稅率과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崔 日 煥 崔 明 根	1983. 7
14. 80 年代 產業構造 高度化를 위한 輸入自 由化와 關稅政策의 方向	安 忠 榮 金 大 植	1983. 8
15. 法人所得과 配當所得의 二重課稅調整에 관한 研究	張 在 植	1983. 9
16. 韓國의 貿易發展과 綜合貿易商社의 役割	李 鍾 允	1984. 3

研 究 叢 書	研究責任者	發行年月
17. 韓國의 赤字財政 研究	韓昇洙	1984. 7
18. 韓國의 土地稅制 改編方向 研究	曹圭昌 金政鎬外	1984.10
19. 臺灣의 產業政策	金迪教	1984.12
20. 韓國의 地方財政 研究	金安濟 吳然天外	1985. 2
21. 纖維產業의 構造調整에 관한 實證研究	尹暢皓	1985. 6
22. 稅法上 實質課稅에 관한 研究	李泰魯 李哲松	1985. 7
23. 金融費用增加와 物價上昇에 관한 微視的 分析	金大植	1985. 8
24. 經濟體質強化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崔明根 李俊求外	1985. 9
25. 韓國貿易構造의 決定要因과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金勝鎭	1985. 9
26. 韓國企業의 經營特性要因에 관한 研究(I)	崔棟圭	1985.10
27. 半導體產業의 現況과 育成政策	尹暢皓	1986. 3 〈改訂版〉
28. 信用配分과 金融自律化의 方向	金寬洙	1985.12
29.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產業別 資金配分の 効率性 分析	李相萬	1986. 4
30. 市場經濟體制의 高度化와 公正去來秩序	李成舜	1986. 4
31. 產業別 技術革新過程과 政策課題	李軫周 崔棟圭	1986. 4
32. 製造業部門 比較優位構造의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金勝鎭	1986. 5
33. 非上場株式 課稅評價方法의 合理化方案	崔明根	1986. 8



研 究 叢 書	研究責任者	發行年月
34. 韓國과 臺灣의 通貨政策 및 物價	金大植	1986. 9
35. 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實證的 研究	崔棟圭	1986.11
36. 韓國經濟學 研究序說	朴宇熙	1986.11
37. 韓國의 中小企業과 系列化	丁炳然 尹暢皓	1986.12
38. 海外轉換社債發行과 企業財務戰略	李商彬 梁浩澈	1987. 1
39. 政府와 市場	尹暢皓 李奎億 李成舜	1987. 1
40. 開放經濟下的 貨金政策	朴世逸	1987. 1
41. 換率變動에 따른 韓·日의 產業 및 貿易 構造의 變化	李榮善	1987. 3
42.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崔洸	1987. 4
43. 企業集團의 形成에 카니즘과 評價	李鍾允	1987. 5
44. 韓國 企業그룹의 多角化戰略 研究	趙一欽 李成圭	1987. 5
45. 換率變動에 따른 國際競爭力과 產業內 貿易의 變化推移	金勝鎭	1987. 6
46. 中小企業의 知識集約化에 관한 研究	趙觀行	1987.11
47.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의 改編方案 研究	崔明根	1987.12
48. 技術革新의 產業組織의 特性에 관한 研究	林陽澤	1988. 4
49. 企業의 技術擴散에 관한 研究	林陽澤	1988. 4
50. 公企業 및 政府出資企業의 民營化 推進方 向에 관한 研究	郭秀一 金宇峰	1988. 5
51. 產業內貿易의 變化推移와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金勝鎭	1988. 6
52. 臺灣의 租稅構造와 貯蓄·投資	劉定熙	1988. 7

研 究 叢 書	研 究 責 任 者	發 行 年 月
53. 韓國貿易收支와 主要産業 輸出構造 分析	馬 在 信	1988. 7
54. 美國貿易의 政治經濟學과 韓國의 對應方案	金 煉 錫	1988. 9
55. 經濟發展에 있어서 國家財政의 役割	金 東 建	1988.10
56. 韓國資本主義의 이데올로기 再定立方向	金 廣 斗	1988.10
57. 韓國企業의 準租稅에 관한 研究	李 春 權	1988.11
58. 資本自由化의 巨視經濟的 側面	金 秀 勇	1988.12
59. 産業集中度의 決定要因 및 變化要因과 最適企業規模에 관한 研究	林 陽 澤	1988.12
60. 開放經濟下의 金利政策	金 大 植 安 國 臣	1989. 1
61. 韓國 大企業集團의 生成環境과 進路	郭 承 滌	1989. 1

### 研究調查資料

研 究 調 查 資 料	研 究 責 任 者	發 行 年 月
1.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貿易 및 産業調整	篠原三代平	1981. 9
2. 現行 租稅의 問題點	吳 正 根 金 祥 九	1981.10
3. 民主資本主義의 將來	마이클노박 著 金 鎮 炫 譯	1982. 2
4. 地方歲入의 地域的 不均衡에 관한 經驗的 研究	吳 然 天	1982.11
5. 政府規制 緩和方向과 美國經濟 展望	마빈코스터즈 外	1983. 4
6. 韓國經濟學의 摸索	申 泰 煥 趙 淳	1983. 5
7.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마이클노박 著 金 鎮 炫 譯	1983. 8

研 究 調 查 資 料	研 究 責 任 者	發 行 年 月
8.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마이클노박 著 金 鎮 炫 譯	1983. 8
9.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	마이클노박 著 金 鎮 炫 譯	1983. 8
10. 韓國과 第 4 次 産業革命: 1960 ~ 2000	W.W. 로스토우	1983.10
11. 企業稅制 合理化的 基礎研究	尹 桂 燮	1983.10
12.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마이클노박	1983.11
13. 國民租稅意識의 調查研究	金 鎮 炫 外 崔 明 根 外	1983.12
14. 成長經濟에 있어서의 資本所得에 관한 適正稅率과 歸着分析	李 萬 雨	1984. 4
15. 資本主義精神과 反資本主義心理	L.V. 미세스 著 金 鎮 炫 譯	1984. 5
16. 美·日의 産業政策과 韓國의 對應	찰머스 존슨	1984. 6
17. 企業의 社會奉仕	本院研究部 編	1984.10
18. 中共의 經濟法令 解說	朴 椿 浩	1985. 1
19.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通貨信用政策 의 方向	金 大 植	1985. 3
20. 家計貯蓄増大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本院研究部 編	1985. 8
21.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I)	崔 鍾 泰 外	1988. 4
22.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II)	林 鍾 律 外	1988. 5
23. 換率變動의 輸出入價格에의 轉嫁度와 示唆點	郭 承 溍 外	1988. 7
24. 金融自律化的 效率的 推進方向	李 愚 寬 外	1988. 7
25. 원貨切上에 따른 輸出企業 對應戰略	馬 在 信 外	1988. 8
26. 中國의 經濟改革과 韓國企業의 進出	李 奉 錫 外	1988. 9
27. 國際收支 黑字管理와 巨視經濟政策	嚴 永 錫	1988. 9

## 研究報告

研 究 報 告	研 究 責 任 者	發 行 年 月
1. 金融革新과 通貨金融政策 改編方向	金 廣 斗 鄭 雲 燦 外	1985. 3
2. 金融自率化 및 銀行與信管理 改善方案	李 滿 基	1985.12
3. 現行經濟法の 問題點 및 改善方向	姜 明 憲	1986. 2
4. 우리나라에 있어서 金利가 貯蓄, 投資 에 미치는 影響	李 相 萬	1987. 1
5. 日本의 貿易·資本自由化와 그 對應政策	金 經 斗	1987. 4

## 政策研究

政 策 研 究	研 究 責 任 者	發 行 年 月
1. 經濟民主化의 基本構想	鄭 暢 泳 外	1988. 4